

## 병아리가 묻습니다 “선배님, 쿠팡에 왜 오셨어요?”

2023. 1. 17.

지위가 아닌 지식이 권위가 된다. 쿠팡의 리더십 원칙 “Influence without Authority”를 설명하는 말입니다. 이 말은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근거로 사람을 설득하고,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쿠팡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뜻하는데요. 이에 대해 각기 다른 경력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

17년 차 개발자 최윤정 님(Amy), 14년 차 개발자 이태훈 님(Taylor), 그리고 2년 차 개발자 조항래 님(Henry)을 모셨습니다. CMG(Coupang Media Group) 조직의 세 분은 경력도,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. 하지만 다함께 커머스의 미래를 바꾸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. 세 분과의 대화를 엮었습니다.

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쿠팡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?



왼쪽부터 최윤정(Amy), 이태훈(Taylor), 조항래(Henry) 님

**Amy** 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. 저는 작년 2월에 쿠팡에 입사했어요. 쿠팡에서 CMG 플랫폼, 그중에서도 콘텐츠 관리 플랫폼과 리포팅을 담당하는 두 개 팀을 리딩하고 있습니다.

**Taylor** 안녕하세요 저는 타일러라고 하고, 쿠팡에 입사한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. 개발자로 일한지는 벌써 14년 차네요. 쿠팡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.

**Henry**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헨리입니다. 저는 2020년 12월에 입사해서 만 2년을 갓 넘겼어요. 쿠팡이 첫 회사입니다. 저는 기획전 랜딩 페이지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연관된 서비스를 개발해요.

**다들 쿠팡엔 왜 입사하셨나요?**

**Amy** 쿠팡에 들어올 때, 고객이 진짜 만족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어요. 저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전달하는 즐거움 때문에 개발 일을 시작하고, 17년째 일하고 있거든요. 쿠팡이 그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.

**Taylor** 저는 문화를 많이 고려했어요.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인지, 내가 성장할 수 있는

곳인지 생각했을 때 쿠팡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었어요. 쿠팡이 로켓 성장한 데에 다 이유가 있었을 거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요.

Henry 제가 지원했을 때는 2020년도인데, 그 무렵 쿠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. 회사와 제가 같이 성장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, 여기다 싶었죠.

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어떠신가요?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하나만 꼽아주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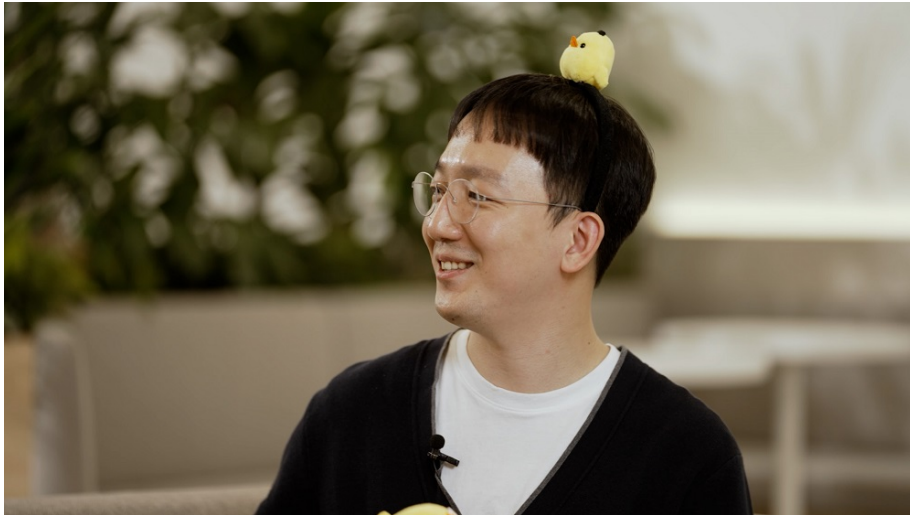
Taylor 모든 우선순위가 'Wow the Customer'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. 쿠팡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, 어떻게든 빠르게 원인을 찾아내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에 집중해요.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고객에겐 중요하거든요.

Amy 저는 엄청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의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올해 쿠팡 iPhone 14 Series 사전 예약 서비스 개발을 리딩 했는데요. 그 때 분당 수십만 접속자를 버텨내는 경험을 했어요. 관련된 사람들이 다같이 방에 모여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밤새 대응했죠. 엔지니어에게 있어 이런 특별한 경험은 쿠팡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



또, 육아를 하면서 개발 수준이 높은 쿠팡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, 기우였어요. 육아를 하면서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엔지니어나 여성 리더분들도 회사에 많이 계시더라고요.

헨리님은 학생 때 생각했던 것과 입사 후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?



**Henry** 처음 개발공부 시작했을 때는 데모 페이지 몇 개 만들어보고, '서비스 하나 만들기는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?'라고 생각했어요. 쿠팡을 예로 들면, 쿠팡은 쿠팡 앱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정말 주니어라서 할 수 있는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(웃음).

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고,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단순한 구조로는 이걸 유지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쿠팡같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

**Taylor** 1층짜리 집 짓는 것보다 빌딩 짓는 게 어렵잖아요. 안정적으로 하중을 버텨야 하니까. 그런데 여기서도 그게 되는 거죠. 또, 규모가 커지면 비즈니스 속도도 느려지기 마련인데, 여전히 쿠팡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.

### 함께 일하는 개발자들은 어떤가요?

**Amy** 선순환된다고 해야 할까요. 여기 채용 기준 높은 건 업계에서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, 쿠팡에 들어와서는 배우는 게 생길 수 밖에 없더라고요. 17년차인 저도 계속 공부하고, 또 공부해야 하거든요. 주니어, 시니어 가릴 것 없이 같이 일하다 보면 좋은 시너지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.

**Taylor**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, 쿠팡 개발자 중에 못하는 개발자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 정도로 이미 잘하는 개발자들인데 더 신기한 건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. 정말 좋은 개발자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

### 다른 직무 혹은 다른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수월한가요?



**Henry** 네, 애초에 '나는 개발, 너는 기획, 너는 디자인' 이렇게 업무 범위가 나뉘어 있지 않아요. 중요한 건 고객이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. 개발자인 저희가 기획이나 UX / UI에 대해 의견을 내도, 잘 들어주시다 보니 개발자인 저희도 다른 직무인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않고, 하나라도 더 반영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. 서로 편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. 결국 이런 배경에서 사용자가 쓰기 좋은 서비스가 나오죠.



Amy 비즈니스 팀이랑 같이 일할 때도 헨리 님이 의견을 많이 내시고, 그중 서비스에 적용된 의견도 많아요. 사실 이런 건 다른 회사에서 주니어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. 하지만 쿠팡에서는 연차에 상관없이 상품에 영향을 주는 의견을 내고, 설득력 있는 제안이면 그걸 서비스에 반영하는 게 가능해요.

해외 개발자들과 일할 기회도 자주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식으로 같이 작업하시나요? 시차나 언어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.



Taylor 시차만 빼면 한국 개발자랑 일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근무제가 유연 근무제라서 시차도 큰 문제는 아니고요. 다른 회사는 보통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일한다고 하면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,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. 회사에 통번역사분들 다 계시고, 미리 요청만 하면 통역 지원을 해주시거든요. 개발 협업을 하기 위한 툴들도 다 세팅 돼있고요.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.

마지막으로, 쿠팡 개발 직군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쿠팡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점을 말해주세요.



Taylor 개발자 입장에서 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주어진 기획대로 개발만 하는 곳이 있고, 기획 단계부터 개발자가 같이 참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. 저에게는 기획 단계부터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쿠팡의 큰 장점이었어요. 그래서 7년째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.

이런 업무 스타일은 사내 개발 문화와 맞닿은 내용이라 입사하기 전엔 알기 힘들어요. 그래서 만약 본인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이라면,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쿠팡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.

Henry 주니어 입장에서 말해보자면, 주니어에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개발자의 자산은 결국 자기가 가진 기술이에요. AWS부터 시작해서, 여러 가지 CI/CD 툴, 코드 리뷰 툴 등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쿠팡은 빠르게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고, 여러 가지 툴로 고도화된 일을 해볼 수 있는 회사는 쿠팡 외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쿠팡에서는 좀 더 넓은 시야

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.



**Amy** 저는 시니어 개발자들에게 스스로 도전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, 쿠팡은 도전이 가능한 회사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. 저처럼 연차가 많이 찬 엔지니어들은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. 하지만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본인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쿠팡에 왔을 때, 그것들이 서비스에 활용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여기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.

저는 쿠팡에서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, 새로운 엔지니어링 라이프를 맞이했어요. 그래서 쿠팡이 주니어에게만 좋은 회사,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시니어들에게도 성장을 위해 고려해볼 만한 회사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.

[쿠팡 채용 사이트 둘러보기](#)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